

환경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의 10월 11~13일 개최

'2011 UEA(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가 97일 앞으로 다가왔다. 'Green City, Better City'를 주제로 오는 10월 11~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00여개 국내외 도시가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광주정상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및 물 절약 및 재생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각 도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광주일보는 광주정상회의를 앞두고 광주시의 관련 환경 분야 정책을 집중 점검한다.

사람·자연·도시의 조화 이룰 구체적 방안 마련한다

<1> 7개 환경정책 점검

국내외 100여개 도시 참여...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물 절약 등

지난 2005년 6월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도시환경협약에서 '그린시티 선언'이 발표됐다. 도시주제에 맞게 설정된 환경 7개 분야·21개 조항이 포함된 선언을 통해 세계 52개 가맹도시들은 공동으로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도록 노력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지난 2005년 11월7일 도시환경협약에 가입한 광주는 2012년까지 21개 조항 중 16~18개 조항을 이행해 '녹색창조도시'를 목표로 환경 문제에 접근해왔다. 지난 2006년 3월 실행계획을 작성해 2007년 이행 평가지표를 개발했으며, 2008년 51개 세부사업을 발굴하기도 했다. 2010년까지 9902억원을 투자했고, 올해만 해도 3028억원이 투자된다. 이는 모두 국·시비

를 포함해 3조6236억원이 소요될 대규모 프로젝트다.

도시환경협약의 7개 분야는 에너지·쓰레기 감량·도시계획·도시자연경관·교통·환경보전·물이다. 구체적 21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가시켜 7년(2012년) 내 최대전기 부하량의 10%를 충당 ▲에너지 효율화, 수요조절, 보편대책을 마련해 7년 내 최대전기 부하량 10% 감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5% 감소

◇쓰레기 감량 = ▲2040년까지 쓰레기 제로화 달성정책 수립 ▲일회용, 유독성, 비재생 상품류를 7년 내 50% 줄이는 시 조례 제정 ▲매립, 소각 고형폐기물 1인당 발생량을 7년 내

20% 감소 및 재활용 프로그램 실행

◇도시계획 = ▲모든 시 빌딩에 적용되는 그린빌딩 평가시스템 기준시행 정책 채택 ▲열린 공간시스템이 있는 종합적인 토지이용과 교통으로 시계획 채택 ▲쇠퇴지역이나 저소득에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창출 정책 및 실행

◇도시자연경관 = ▲2015년까지 0.5km 내에서 이용가능한 공원이나 휴식공간 조성 ▲인도면적 50% 이상 차양(그늘) 면적조성 ▲중요서식지 통로들과 주요서식지 개체들을 보호하는 입법(조례제정)

◇교통 = ▲모든 시민이 10년 내 0.5km 내 이용가능도로 범위 확대 ▲디젤과 가솔린 연료의 황 수치를 낮추

며 7년 내 공공교통의 미세먼지와 스모그 형성배출을 50% 감소시키는 규정제정실행 ▲7년 내 1인 승용차량출·퇴근 비율 10% 감소

◇환경보전 = ▲매년 인위건간에 가장 해로운 화학적·복합적 생산품 하나를 규정 및 감소시키는 조례제정 및 인센티브 부여 ▲지역 내 유기농 식품공정 및 7년 내 학교포함 모든 도시시설의 20%에 지역생산 유기농식품 제공 ▲대기질 지표개발 및 7년 내 10% 저감목표 설정

◇물 = ▲안전한 식수를 2015년까지 충분히 보급 및 물 소비량 10% 감소정 추진 ▲식수원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보호 ▲하·폐수 관리 지침 채택 및 7년 내 미처리 하·폐수 10% 저감

2005년부터 현재까지 환경평가를 내린 결과 협약 조항 중 12개 조항이 A등급, 6개 조항이 B등급, 3개 조항이 C등급을 받았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교통신호등·조명등 LED 보급사업, 탄소은행제 실시, 푸른길 공원 조성 등 협약이행 실행계획에 따라 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조명 보급과 녹지공간 조성 등 기관 중심의 추진이 실현될 뿐, 아직 일반 시민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탄소은행제와 같은 정책이 생소하다는 지적도 있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임낙평 대표는 "광주시가 나서서 친환경 녹색도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보호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게 사실이며 실현 가능한 정책들이 실천 가능하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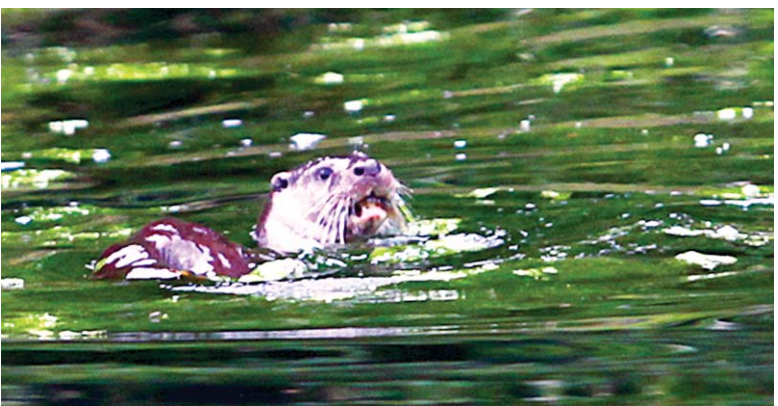
주최 광주광역시

장소 김대중컨벤션



'2011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D-100일 행사가 지난 4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앞 광장에서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대원사 연못에 수달 한마리

지난 2일 오후 5시40분께 보성군 대원사 연못에서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포착됐다. 몸길이 90cm 기량의 수달 한 마리가 물속에서 고개를 내미는 순간을 영글에 담았다. (사진제공 = 독자 김은조씨)

'레인보우 워리어 3' 공개 그리피스, 10월 공식 취항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리피스가 환경과 반대 운동을 상징하는 최첨단 선박 '레인보우 워리어 3'를 4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161년 된 독일 조선소에서 건조된 2300만유로(한화 약

355억원)짜리 이 신형 선박은 그리피스의 40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월 있을 공식 취항식에 앞서 이날 독일 북부도시 베른-모겐에서 진수됐다.

레인보우 워리어 3는 총 길이 58m로 50m의 마스트를 이용해 항해하며, 전기 모터를 이용할 때 시속 18km, 디젤 엔진으로는 시속 28km의 최대 속력을 낼 수 있다. /연합뉴스

자연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 집중 제거

영산강환경청, 백양사 일원서 붉은귀거북·돼지풀 등

자연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동·식물을 제거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안연순)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백양사사무소(소장 정석원)는 6일 오전 10시 장소성 북한내 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 일원에서 장성군청, 한국농어촌공사, 민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태계 교란종 및 외래종 제거 행사'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고유생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붉은귀거북, 돼지풀, 미국자리공 등을 집중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외에서 반입된 애완동물, 외래식물 등이 자연상태에 무단 방출돼 국내 고유생물종 서식환경에 커다란 위협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통발형 그물과 주

낙을 이용해 붉은귀거북을 포획하며, 돼지풀과 미국자리공은 뿌리채 뽑아 제거할 예정이다.

애완동물로 수입된 붉은귀거북은 사육중에 방류하거나 불교에서 방생 등을 통해 자연에 널리 확산했는데, 번식과 성장이 빠르고 다양한 동·식물을 먹이로 하기 때문에 생태계를 교란시키며 특히 우리 고유종인 수서 곤충과 갑각류, 어류 등의 피해를 양산한다.

또 북미가 원산지인 돼지풀은 미군 물자나 인간의 잦은 이동으로 확산했는데, 비열을 발생시키고 다른 식물의 생육을 저해해 경관을 변형시킨다. 산과 들, 마을근처 숲 가장자리의 풀밭에서 자라는 미국자리공은 토양 산성화를 유발하여 토종 식물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



붉은귀거북



미국자리공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생태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의 외래종 제거행사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

군부대 환경관리 선진화

영산강환경청·31보병사단 협약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안연순)과 육군 제31보병사단(사단장 고성균)은 5일 군 주둔지의 환경보전을 위해 서로 환경정보를 교류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군 주둔지 환경보전에 필요한 수질, 토양, 화학물질의 공동조사, 기술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날 열린 '군관 지역환경협의회'에서는 곡성중대, 강진연대 하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안전과 전담에서 제출한 장마철 대비 영산강 부유쓰레기 수거 안전이 집중논의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군부대

하수의 연계처리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적극적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제31사단과 각 부대는 영산강 부유쓰레기 수거 등 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최근 주한미군 공역지에 대한 환경문제가 떠오른 가운데, 이번 협약 체결은 군 환경문제 예방과 환경관리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제31사단은 군부대 우수처리시설 기술지원, 상수원관리지역 정화활동, 화학테러 공동 대응훈련 등을 통해 군 환경관리 선진화에 노력해왔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계절별미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moviehelic. 두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즐거운 영화와 함께 하세요. 상무점, 강남점, MEGABOX, CINUS. 상무점: 1관 트랜스포머3 (12세), 2관 쿵푸팬더2 (전제)/정무문 (15세), 3관 트랜스포머3 (12세), 4관 트랜스포머3 (12세), 5관 씨니 (15세), 6관 트랜스포머3 (12세), 7관 트랜스포머3 (12세), 8관 트랜스포머3 (12세), 9관 풍산개 (18세), 10관 슈퍼에이트 트랜스포머3 (12세). 강남점: 1관 트랜스포머3 (12세), 2관 트랜스포머3 (12세), 3관 씨니 (15세), 4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 5관 정무문:100대1의전설 (15세), 6관 쿵푸팬더2 (전제)/풍산개 (18세), 7관 쿵푸팬더2 (전제)/트랜스포머3 (12세), 8관 쿵푸팬더2 (전제), 9관 트랜스포머3 (12세), 10관 트랜스포머3 (12세). MEGABOX: M관 트랜스포머3 (12세) 최고급관, 2관 트랜스포머3 (12세), 3관 고양이-죽음을보는두개의눈 (18세), 4관 고양이-죽음을보는두개의눈 (18세), 5관 트랜스포머3 (12세), 6관 씨니 (15세)/풍산개 (18세), 7관 트랜스포머3 (12세), 8관 쿵푸팬더2 (전제), 9관 트랜스포머3 (12세), 10관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트랜스포머3 (12세). CINUS: 1관 트랜스포머3 (12세), 2관 씨니 (15세), 3관 트랜스포머3 (12세), 4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풍산개 (18세), 5관 쿵푸팬더2 (전제), 6관 정무문:100대1의전설 (15세), 7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 8관 트랜스포머3 (12세), 9관 트랜스포머3 (12세).